

전주시 인구정책 길라잡이 책자 발간

임신·출산·교육·취업·노후 지원 등 159개 사업 수록해 도서관·주민센터 비치·시 홈페이지 게시

전주시가 아동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인구정책들을 모아 책자로 발간했다. 책자에는 '밥 굵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정년원표 프로젝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들이 총망라됐다.

시는 단계별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전주시 인구정책 길라잡이, 시민들은 전주'를 제작해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도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 발간된 이 책자에는 ▲임신·출산 지원 20개 사업 ▲양육·교육 지원 72개 사업 ▲취업·주거지원 30개 사업 ▲

노후 지원 27개 사업 ▲기타 지원 10개 사업 등 5개 분야 총 159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사업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담당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수록됐다.

임신·출산 지원 분야의 경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구강관리, 출산준비교실, 산후우울증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이 담겼다.

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양육·교육 지원 분야에는 가장 많은

사업들이 수록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내 인프라와 함께 야호 생태 탐견쇼, 유아숲체험원, 야호책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등 놀이환경도 소개됐다. 밥 굵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의 복지정책도 있다.

청년 이탈의 심화를 막기 위한 취업·일자리·주거 지원 정책도 눈길을 끌었다. 청년원표 프로젝트, 청춘꿈꾸웃장, 청년 상상놀이터, 오픈지플래닛 전주창업지원센터, 내몰사랑 2030 청년건강관리사업, 청년 매일입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됐다.

노후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필두로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지원, 노인 의치(틀니) 지원, 기초연금 지급, 경로 목욕권 지원, 치매 무료검진,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작 등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 안전보장제도,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전주시 전동보장구 보험 등 시민들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도 실렸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인구정책 길라잡이 책자에 담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시민들이 잘 활용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랑하는 전주'로 나아가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복숭아 활용 미식 콘텐츠 발굴

전주시, 다양한 레시피 영상 SNS 통해 홍보

전주 특산품인 복숭아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가 공유된다. 전주시는 복숭아를 활용한 특색 있는 미식 콘텐츠를 발굴해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복숭아 요리는 달콤한 복숭아즙이 가득한 ▲복숭아 코디얼(Cordial), 달콤한 주스 복숭아 처트니(Chutney; 소스), ▲복숭아 고추장과 여름비빔면 ▲복숭아 속 크림치즈와 크림볼 ▲검은콩 크림볼과 홍차시럽을 곁들인 그리핀은 복숭아 등 다양하다.

이러 레시피 영상은 19일부터 '비지전주(visitjeonju)' 인스타그램

과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7월 말경 '비지전주' 팔로워들을 초청해 복숭아를 활용한 쿠킹클래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복숭아는 저장성이 타 과일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지만 여름에만 먹을 수 있다는 한시성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스페인의 토마토축제를 예로 들면 단품과일 콘텐츠 하나가 얼마나 큰 관광소득원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만큼 전주시도 관광 차원에서 다양한 미식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신중앙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범 운영

전주시, '장바요-시장을 담다' 앱 활용 오후 5시 전 상품 주문하면 2시간 이내 배달 가능

전통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신선한 농·수산물과 먹거리들을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19일부터 온라인 쇼핑 배달 앱인 '장바요-시장을 담다'를 활용해 신중앙시장 온라인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신중앙시장 상인회는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배달 앱 서비스 수행기관 중 한 곳인 ㈜쇼포바스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장바요-시장을 담다' 앱을 설치한 뒤 '전주신중앙시장'을 입력해 들어가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현재 정육, 생선, 반찬류, 채소 등 농산물, 유류 등 40개 점포가 입



전주시는 19일부터 온라인 쇼핑 배달 앱인 '장바요-시장을 담다'를 활용해 신중앙시장 온라인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점해 있으며, 참여 점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상품 배송은 오후 5시 전 주문 건에 한해 당일 2시간 이내에 배달되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주 전역에 배달(유료)이 가능하다. 다음 달 14일까지는 오픈 이벤트로 3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반봉현 신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배달 앱 도입이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모래내시장에도 '놀장(놀러와요 시장)'을 활용한 근거리 배송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태훈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전주시 어르신 복지자원관리시스템'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동 활용

전주시가 공공기관과 민간 복지기관의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보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민·관이 함께 사용하는 '전주시 어르신 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4월부터 109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의 경우 민·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통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통합 시스템은 ▲복지서비스 내

용 ▲자원총량 ▲잔여량 ▲기관 연락처 ▲서비스 제공담당자 등 각 기관에서 제공 중인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중복으로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이점이 있다.

실제로 시는 민간기관과 3개월간 시스템을 운영해 총 2만5000여 건에 달하는 서비스 연계내역을 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40여 건의 중복지원을 예방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시는 시스템을 통해 민·관이 소통하며 복지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통합돌봄 독자모형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여름방학 '휴~후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40명 모집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오는 31일까지 여름방학 '휴(休)~후 프로젝트'에 참여할 14~18세 청소년 40명을 모집한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 중 자기개발, 신체단련 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위한 원동력을 얻는 활동이다.

올해에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나도 크리에이티브!', '꿀 때리는 친구들'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각각 야호학교 인후공간과 서신동 풋살일반가에서 진행된다.

'나도 크리에이티브!'의 경우 ▲박명주 작가 초청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되기' 강의 ▲브이로그·게임·뷰티 등 영상 콘텐츠 잡기 ▲유튜브 제작·발표 등의 활동이 펼쳐진다.

'꿀 때리는 친구들'은 ▲기본 스트

레칭 ▲관절 가동성 증가를 위한 유산소 운동 ▲축구 기본기 배우기 ▲실전 축구 등 신체단련 활동이 이어진다.

각 프로그램별로 20명씩을 모집하며, 참여 희망 청소년은 온라인(http://naver.me/5JJyEPpw)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휴~후 프로젝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야호학교(063-281-658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예방 주력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가 올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합회 활동에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센터는 286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펼쳤다. '장난을 가장한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또 청소년 83명과 함께 또래상담자 교육·연합회 활동을 실시했다. 일정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올바른

관계 성립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다. 특히 근영중학교와 우전초등학교에서는 열서쓰기 캠페인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민·관·경이 연합회 학교 및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연합아웃리치'도 9회에 걸쳐 진행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